

|          |       |  |                   |                                |  |
|----------|-------|--|-------------------|--------------------------------|--|
|          |       | <b>보 도 자 료</b>   |                   | 수도권매립지 종료                      |  |
|          |       | 배포일자<br>2021년 12월 5일(일)<br>총 4매                                    | <br>환경특별시 인천      |                                |  |
| 담당<br>부서 | 시립박물관 | 담당자  | ·전시교육부장<br>·학예연구사 | 배성수 ☎440-6731<br>우석훈 ☎440-6735 |  |
| 사진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교사 남영란의 눈으로 바라본**  
**“열아홉 보고서 -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낸 <열아홉 보고서>展**  
**12월 6일부터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개최**

인천광역시시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 시청역에 위치한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열아홉 보고서 -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현직에 있는 교사 ‘남영란’의 눈으로 바라본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인천시청역 지하3층 1, 9번 출구 앞 ‘열린 박물관’에서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열린박물관’은 지난해 6월 25일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교통공사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립박물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관람 제한 없이 인천 시민에게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우리 모두는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틀렸다고 생각된 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었을 뿐 이었다” 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문의: 032-440-6735)

<붙임 1> 전시회 포스터

<붙임 2> 교사 남영란의 전시 소개 전문

〈붙임〉 전시 포스터

# 열아홉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보고서

19-year-old report

남 영 란 NAM YOUNG RAN

2021. 12. 06<sup>MON</sup> \_ 2022. 01. 31<sup>MON</sup>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 갤러리

후원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문화재단  
Incheon Cultural Foundation

본 전시는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2021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붙임〉 교사 남영란의 전시 소개 전문.

‘열아홉 보고서’ 사진전은 현직에 있는 ‘남영란’ 교사가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학교 안 모습이다. 이곳에는 익숙한 듯 빠르게 전개되는 일상이 존재하고 어제를 붙여 놓은 것 같은 오늘, 낯익은 형상과 과거로부터 날아온 관념, 성적으로 배열된 뜨거운 심장들이 뒤섞여 있는 다중적인 아우라가 있다.

고요하지만 개성이 넘치는 이 세상 안에는 다양한 행동과 사고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무심한 듯 기묘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가 하면, 수상한 듯 아름답게 고운 봄빛의 인상(印象)들이 숨어있다.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신비한 인상(印象)과 마주했지만 다양한 인상(人相)만큼 제각기 품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모든 길은 입시로 통하는 이곳에서 수량화된 성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능력과 수준을 결정한다.

침묵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한 불안’이 스민다.

우리는 누구나 학생이었고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숭고하리만큼 존귀한 시간이었다. 남들과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유년의 방황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의 어둠에서 깨어난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

시간의 화석이 된 청춘의 기억 그 파편을 꺼내어 놓고, 현재를 살아내는 열아홉 살의 인상(印象)과 마주한다.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열아홉 살의 아귀를 지으며, 교문 앞에 기다리는 존엄한 자유와 질곡으로 웅크렸던 붓짐을 풀어내고 비상(飛上)하기를 바란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